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52.8	16.3	126,500	-1.9	2.8	-1.2	-1.6	88.2	42.3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90.9	22.1	331,000	-2.8	-3.2	-4.6	-4.3	4.5	3.7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52.9	5.9	22,250	-3.7	-12.9	-28.9	0.2	2.1	1.8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39.7	10.9	47,700	-0.4	-8.6	-17.9	11.7	3.0	2.2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380.2	19.9	8,540	0.2	-1.6	-0.6	15.2	53.9	26.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84.0	11.6	29,700	-0.2	2.6	-14.2	-13.0	10.4	16.4	0.9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296.7	13.4	57,500	1.1	-4.2	-4.6	-4.2	12.4	9.0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74.5	3.3	1,645	0.0	N/A	N/A	-0.6	33.1	8.3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316.6	20.4	85,300	-0.8	-11.1	-30.7	-20.3	15.1	14.7	2.1	1.8	14.6	13.3
두산밥캣	3,318.2	25.3	33,100	-1.6	5.6	-2.4	5.1	12.1	11.4	0.9	0.9	7.4	7.6
현대로템	1,776.5	4.1	20,900	-2.6	-12.7	-28.9	-25.0	27.0	18.4	1.2	1.1	4.5	6.3
하이룩코리아	270.9	47.7	19,900	0.5	3.1	2.3	21.0	9.0	8.2	0.8	0.7	8.8	9.0
성광밴드	334.6	16.5	11,700	-0.8	4.0	1.3	2.6	1,034.3	42.0	0.7	0.7	0.1	1.8
태광	318.0	11.7	12,000	1.3	4.8	-1.6	2.6	71.7	35.0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56.8	10.4	7,010	-5.8	-4.9	-30.0	-16.5	-21.1	12.5	0.3	0.4	-0.1	3.1
두산인프라코어	1,496.7	16.6	7,190	-1.1	-5.6	-18.8	-5.3	4.9	5.3	0.8	0.7	17.7	13.4
HSD엔진	134.3	3.3	4,075	0.1	-15.1	-23.7	-22.8	-10.7	N/A	0.6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202.1	15.7	32,850	-7.1	-10.6	-3.7	3.0	47.9	21.0	2.9	2.7	6.1	13.8
한화테크윈	1,605.4	14.5	30,850	-1.1	-8.5	-2.1	-5.1	127.8	24.7	0.7	0.7	0.6	2.8
LIG넥스원	798.6	7.7	36,300	-2.9	-5.6	4.0	-1.8	83.6	36.7	1.6	1.3	2.4	3.6
태웅	204.1	3.9	10,200	-1.0	2.1	-8.1	-2.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72.5	7.0	10,100	3.1	17.0	23.9	30.8	-21.3	18.2	3.7	3.1	-16.2	18.5
한국카본	385.5	15.1	8,770	2.5	5.3	14.3	24.6	136.6	23.1	1.3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1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1p, 중고선가 지수는 96p로 전주와 동일함. 삼성중공업은 익명의 선주에게서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2년 1분기로 예정됨. 벨기에 선사 Exmar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발주했던 8.6만CBM급 LPG추진 VLGC 2척을 중국 Jiangnan SY Group에 다시 발주함. (Clarksons)

Nissen Kaiun orders VLGC at Hyundai Heavy Industries for Eneos charter

일본선사 Nissen Kaiun은 Mitsui & CO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8.5만CBM급 VLGC 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2020년 말로 예정됨. 선박에는 스크러버가 장착될 예정임. 정확한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7,300만달러 이상으로 예상됨. 해당 선박은 일본 에너지업체 JXTG Nippon Oil & Energy로 용선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TradeWinds)

Samsung eyes China for MJ floater work

삼성중공업은 인도 Reliance MJ FPSO에 필요한 Topside 모듈을 중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론된 조선소는 CSHI, DSIC, Bomesc Offshore Engineering, CIMC Raffles 등이 거론됨. 다만 발주처에서 중국 야드에서 건조를 승인할 지는 불분명하며, 중국 조선사는 인도 발주처와 계약에서 성공적으로 끝마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Upstream)

Bertram Rickmers targets 40 ships in feeder segment

Asian Spirit Steamship Co(ASSC)는 피더 컨테이너선 선대를 40척까지 확대할 계획임. 현재 중국 조선소에서 1,162TEU급 피더선 8척을 건조 중임. 초도선 건조과정에서 인도지역이 발생했으나, 지연 중에 발주처에서 상황이 유리하게 변함. ASSC는 향후 1,100TEU, 1,800TEU, 2,700TEU급에서 피더선 시황 개선을 예상하며 선대를 늘릴 계획임. (TradeWinds)

삼성중, LNG선 1척 추가수주...전세계 LNG선의 절반 '싸쓸이'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1.9억달러(2,216억원) 규모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밝힘. 인도는 2022년 3월로 예정됨. Clarksons에 따르면 올해 현시점까지 발주된 LNG선은 16척으로, 그 중 삼성중공업은 8척을 수주함.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목표는 78억달러로, 이번 수주도 수주목표 1/3을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Bidders prepare for Shell floater battle

오일메이저 Shell의 Bonga South West-Aparo(BSWA) 프로젝트에 필요한 FPSO와 Subsea 부분에 대한 입찰이 다음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FPSO 입찰에는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 Ladol, 중국 COOEC-Saipem, 중국 CIMC-NOV-인도 Kavin Engineering(나이지리아 현지사 무소 보유)가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6월 입찰가 제시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음. (Upstream)

현대중 · 대우조선 '7조' 군함 수주 예고...'독과점, 입찰제한 문제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두 회사는 해당 사업의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 참여해 규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수주에서 양사간 독과점 이슈나 공공사업 입찰제한은 문제없다고 알려졌다. 합산 투입예산은 2028년까지 7.1조원 규모임. (뉴스1)

김조원 KAI 사장 'FA-50 · 수리'는 구매가 아르헨 항공 발전 기여'

한국항공우주 김조원 사장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면담할 때 FA-50, 수리는 수출과 관련해 논의함. 아르헨티나 공군은 12대 규모의 노후 전투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FA-50 경공력기를 선호해,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 및 산업협력 조건이 포함된 제안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또 수리는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